

#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중앙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건축과 여행

필자는 건축과 인연이 되어 사진작품을 하다 보니 여행을 많이 하게 된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건축답사나 해외여행을 통해 여러 나라의 도시를 직접 찾았다. 따라서 사진가라기보다 여행가(?)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건축을 테마로 한 사진은 건축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하는 부담이 따르지만 오히려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덕에 더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세계를 여행하며 여러 나라와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누구나 해외여행이나 건축기행, 그리고 답사를 통해 더 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건축사진은 빛과 공간의 만남으로 시작된 삶의 공간을 담아내는 작업임으로 이러한

여행은 다른 어느 분야의 작업보다 더욱 흥미와 스릴과 인내가 담긴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지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건축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유한다. 건축은 사진을 통해 보고 느끼는 것 보다는 여행을 통해 실제적인 공간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욱 좋은 건축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현대건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세계적인 건축사가 된 일본의 안도 다다오의 건축사상을 보아도 그는 학문적인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체험들이 더욱 그의 건축 작품 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사상을 보면서 그의 세계적인 명성을 생각할 때 매우 독특한 면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대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몇 년간 프로복서의 길을 가다가 건축잡지나 여행을 통해 독자적으로 건축공부를 하여온 것이었다.



1. 인도 찬디가르의 입법부 청사에서의 석양 2. 인도 찬디가르 조형물 3. 인도 찬디가르의 아침풍경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의 한사람인 르 코르뷔제는 오래전 서양 건축의 원류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지중해 연안의 터키와 그리스와 에게해를 여행하고, 체험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들을 작품들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남긴 글 중 가장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글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 보다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보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여행과 사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누구나 여행을 하다 보면 카메라는 필수품으로 꼭 가져간다. 가는 곳마다 기념촬영을 해야 하고, 여행 후에 남는 것은 사진 뿐이라고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사진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응용으로 셔터만 누르면 얼마든지 사진을 만들 수 있으며 금세 사진을 확인하고 다시 촬영할 수 있다.

좋은 카메라들은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라이카 종류나 핫셀브

라드 등과 같은 고급카메라의 여러 기능들을 사진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많이 알고 관심이 많은 것을 본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진을 알게 되면 우선 카메라 기재부터 신경을 쓴다. 남들이 보고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핫셀브라드 회사에서 한국의 사진가들을 초청하여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세계적인 카메라를 만드는 핫셀브라드 회사는 스웨덴의 남부 항구 도시 예테보리라는 제2의 큰 도시이다. 핫셀브라드를 만드는 그곳에서 여러 제작공정과 우주선에서 사용했던 카메라 등 많은 이야기들과 기술들을 알게 되었다.

핫셀브라드라는 카메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작가들이 선호하는 카메라이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극동담당 요한 슨이라는 영업사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핫셀브라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놀랐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진은 좋은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사진이 내용

보다는 외형적인 겉치레 관심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

가끔 건축여행을 통해 많은 건축사들이 건축물들을 담아내려는 욕심을 보여준다. 건축사라기보다는 사진가들 못지않게 더욱 많은 지식을 갖고 사진가들 못지않게 사진도 잘 찍는 모습도,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된다. 사진은 이론이나 학문적인 것 보다는 경험과 체험들을 통한 테크닉이 좌우하므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훌륭한 사진가가 가능하다. 실패는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남의 먼 곳은 보일지라도 자신의 발 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된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사람들 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낱 집짓고 건물 짓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기술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건축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과 감성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인가?

우리의 건축문화를 보면 비슷한 모습이다. 너무나 외형적인 형태들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다. 현대건축도 유행을 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리모델링으로 탈바꿈하는 패션건물들이 유행처럼 점차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수많은 실패와 경험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나쁜 말로 '눈먼 세금이나 눈먼 예산은 내가 먼저' 라는 식의 리더들의 어리석음들은 이제는 변화되

어야 할 때다.

건축 관련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축사, 건축주, 시공사의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루면 좋은 건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누가 더 많이 보고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더욱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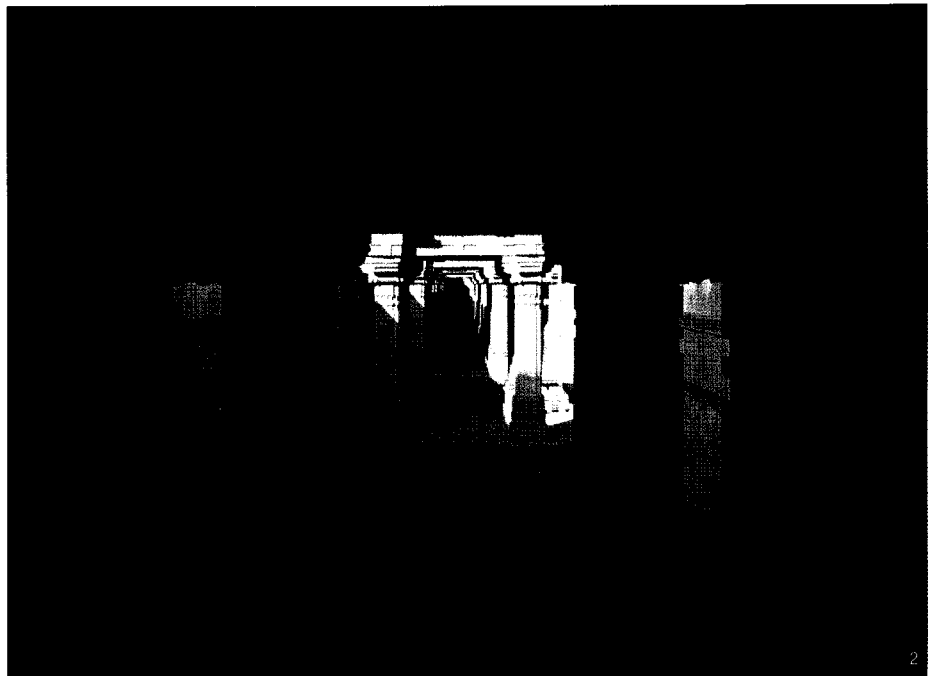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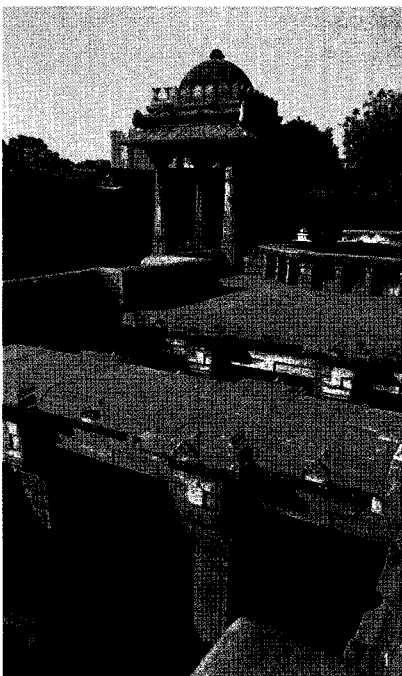
그동안 오랜 세월 고등교육을 받으며 세계적인 건축사가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건축교육에서 조금은 아쉬운 시간들이다. 또한 미래한국을 바라보는 경험과 노하우들을 세계건설현장과 여러 나라에서 배워왔지만 지금까지 건축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들은 자연과 학연에 의해 더욱 부실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세계여행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며 느끼는 것은 그들의 우수성보다도 아직도 우리는 구태한 모습들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는 점이다.

도시의 탈바꿈으로 달동네의 모습들이나 도시의 재개발과정에서 사진을 찍으며 현지인들에게 겪는 일중에 하나는 간첩으로 오인되어 겪는 우스운 일과 정치적인 희생물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촬영하며 기록하고 남기려는 시기에서 권위주의인 사고방식인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였지만, 오히려 건물철거이후 사진 한 장 구할 수 없느냐고 묻는 공무원들의 한심한 모습이 생각난다.

역사와 흔적을 지우는 일이란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먼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사진으로나마 기록하고 남기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간 시간들이다. 이러한 사진작업들은 사진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누구나 손쉽게 기록하며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일들이다.

건축을 공부하고 정치를 한다면 좋은 설계를 하는 정치건축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1. 인도 아메다바드에 한 우물 계단 2. 인도 아메다바드의 우물 계단 실내모습